

# 小兒夜啼에 關한 文獻的 考察

吳何錫\*·金璋顯\*\*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小兒科 專攻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 I. 緒論

어린이는 출생순간에 크게 소리를 내고 운다. 태어난 순간부터 호흡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폐에 공기가 골고루 퍼져 들어가서 호흡이 충분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어린이는 배고프거나 외롭거나 몸이 아프거나 대소변을 봐서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불쾌해서 우는데, 우는것이 유일한 호소방법이어서 어머니를 찾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즉 小兒啼哭은 小兒의 本能的인 反應의 하나로 欲求나 苦痛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sup>2,3)</sup> 韓醫學에서는 “初生月內多啼者吉 胎熱 胎毒胎驚得散 且無奇疾”<sup>4,5,6)</sup>이라 하여 初生兒의 啼哭은 正常的인 것이며 新生兒 疾患을 豫防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강조하였다.

睡眠을 충분히 取하는 것은 小兒가 健康을 維持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啼哭不止하여 睡眠이 不足한

경우에는 正常的인 生長發育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sup>7)</sup> 그러므로 小兒의 苦痛에 대한 反應이며 아울러 睡眠不足을 招來할 수 있는 夜啼症은 辨證求因을 통한 積極적인 治療가 필요한 病症의 하나라 할 수 있다.

夜啼는 小兒가 낮에는 정상인데 밤이 되면 아무런 까닭없이 울거나<sup>8,9,10,11,12,13,14,15)</sup> 혹은 밤 일정한 시간에 우는 것을 말하며, 生後 6個月以內의 嬰幼兒에게 많이 나타난다.<sup>3,7,12)</sup>

夜啼는 隨의 <<諸病源候論, 夜啼候>>에서 “小兒夜啼者 臟冷也 夜陰氣盛 與冷相博則冷動 冷動與臟氣相并 或煩或痛 故令小兒夜啼也”라 하여 처음 言及되었으며, 以後 宋代에 이르러 <<小兒藥證直訣>>에서 “脾臟冷而痛”이라 하여 夜啼의 原因에 關하여 言及되었고 明代의 <<醫學綱目>>에서는 “小兒夜啼有四證 一曰寒 二曰熱 三曰重舌口瘡 四曰客忤”라 하여 夜啼四證에 關한 言及이 있었다.<sup>15)</sup>

夜啼에 關한 研究는 金<sup>16)</sup>의 小兒夜啼의 病因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과

李<sup>2)</sup>의 小兒夜啼의 原因에 따른 治療의 考察에 關한 研究가 있었으나 小兒夜啼와 關聯된 症候의 西醫學的 考察 및 比較에 關한 研究資料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著者는 小兒夜啼의 韓醫學的 考察과 類似症候에 關한 西醫學的 考察을 通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夜啼의 概念

운다는 것(啼哭)은 乳幼兒의 本能이며 欲求나 苦痛을 표현하는 方法이기도 하다.<sup>3)</sup>

小兒가 낮에는 정상인데 밤이 되면 아무런 까닭없이 울거나<sup>8,9,10,11,12,13,14)</sup> 혹은 밤 일정한 시간에 우는 것을 夜啼라고 한다.<sup>12)</sup> 本病은 生後 6個月以內의 嬰幼兒에게 많이 나타나며<sup>3,12)</sup> 日常的인 飲食 起居 및 着衣 等 不適切한 것으로 因한 啼泣은 本症에 포함하지 않는다.<sup>3)</sup>

### 2. 夜啼의 病因病機

#### 1) 一種分類

(1) 幼科類萃<sup>17)</sup>

病因：夜啼小兒臟冷也

病機：陰盛於夜則冷動 冷動則爲 陰極發燥 寒盛作疼

(2) 太平聖惠方<sup>18)</sup>

病因：小兒夜啼者 由臟冷故也

病機：夜陰氣盛 與冷相博 則冷動 冷動與臟氣相并 或煩或痛

#### 2) 二種分類

(3) 小兒藥證直訣類証釋義<sup>19,20)</sup> (표 1)

(4) 韓醫學辭典<sup>13)</sup> (표 2)

(5) 小兒証治<sup>14,21)</sup> (표 3)

(6) 醫學入門<sup>22)</sup> (표 4)

(7) 醫宗金鑑<sup>23)</sup> (표 5)

(8) 萬病醫藥顧問<sup>24)</sup>

病因：小兒初生夜啼其因有二 一 脾寒 二 心熱

(9) 丁茶山小兒科秘方<sup>6)</sup> (표 6)

(10) 張氏醫通<sup>25)</sup> (표 7)

(11) 五峰靑囊訣<sup>26)</sup> (표 8)

(12) 東醫小兒科學<sup>8)</sup> (표 9)

(13) 國譯 景岳全書<sup>27)</sup> (표 10)

(14) 普濟方<sup>28,29)</sup> (표 11)

(15) 幼科釋謎<sup>30)</sup> (표 12)

#### 3) 三種分類

(16) 中醫兒科學<sup>31)</sup>

病因：胃寒 熱重 受驚也

(17) 問答式 婦人小兒科學<sup>12)</sup> (표 13)

(18) 小兒醫方<sup>5)</sup> (표 14)

(19) 小兒衛生總微論方<sup>32)</sup> (표 15)

#### 4) 四種分類

(20) 幼幼集成<sup>33)</sup> (표 16)

(21) 東醫寶鑑<sup>11,34)</sup> (표 17)

(22) 濟衆新編<sup>35)</sup> (표 18)

(23) 陳無擇三因方<sup>36)</sup> (표 19)

(24) 惠庵醫方<sup>37)</sup> (표 20)

- (25) 及幼方<sup>4)</sup> (표 21)
- (26) 症狀鑑別治療<sup>3)</sup> (표 22)
- (27) 吳氏兒科學<sup>38)</sup> (표 23)
- (28) 幼科釋謎<sup>30)</sup> (표 24)

5) 五種分類

- (29) 兒科學講義<sup>39)</sup>  
病因：一心熱 二脾寒 三客忤 四積滯 五稟賦不足

4) 四種分類

- (14) 幼幼集成<sup>33)</sup> (표 37)
- (15) 東醫寶鑑<sup>11,34)</sup> (표 38)
- (16) 濟衆新編<sup>35)</sup> (표 39)
- (17) 惠庵醫方<sup>37)</sup> (표 40)
- (18) 及幼方<sup>4)</sup> (표 41)
- (19) 症狀鑑別治療<sup>3)</sup> (표 42)
- (20) 吳氏兒科學<sup>38)</sup> (표 43)
- (21) 幼科釋謎<sup>30)</sup> (표 44)

3. 夜啼의 原因에 따른 辨證 施治

1) 一種分類

- (1) 幼科類萃<sup>17)</sup>  
病因：臟冷故也  
病理：夜陰氣盛與冷相博則冷動  
冷動與臟氣相并  
治法：釣藤散主之

2) 二種分類

- (2) 小兒藥證直訣類証釋義<sup>19,20)</sup> (표 25)
- (3) 小兒証治<sup>14,21)</sup> (표 26)
- (4) 醫學入門<sup>22)</sup> (표 27)
- (5) 醫宗金鑑<sup>23)</sup> (표 28)
- (6) 丁茶山小兒科秘方<sup>6)</sup> (표 29)
- (7) 張氏醫通<sup>25)</sup> (표 30)
- (8) 五峰青囊訣<sup>26)</sup> (표 31)
- (9) 東醫小兒科學<sup>8)</sup> (표 32)
- (10) 國譯 景岳全書<sup>27)</sup> (표 33)
- (11) 聖濟總錄<sup>29)</sup> (표 34)

3) 三種分類

- (12) 問答式 婦人小兒科學<sup>12)</sup> (표 35)
- (13) 小兒醫方<sup>5)</sup> (표 36)

4. 類似症候에 關한 西醫學 的 考察

1) 영아기 산통

(1) 原因

자율신경계통의 변조, 음식알레르기, 과식, 과도의 긴장감, 장내가스 등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sup>40,41)</sup>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생해서 1-2주일은 젖을 적게 먹다가 제대로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 장 속의 대변분량이 늘어나면서 장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콜릭이 생기는 것 같다.<sup>1)</sup>

재미있는 것은 산통으로 울고 있는 어린이를 안고 쿵쿵 계단을 내려가면 울음을 간혹 뚝 그친다. 이것은 장의 동요로 인해 산통이 멈추는 것으로 생각된다.<sup>40)</sup>

(2) 症狀

小兒에서 가장 흔한 소화기 증상의 하나가 腹痛이다. 영아기에서 수유를 해도 계속 우는 경우는 腹痛을 의심한다.

영아기 콜릭은 예후가 양호한 흔한 질환으로 患兒가 마치 배가 아픈 듯이

(3) 小兒藥證直訣類証釋義<sup>19, 20)</sup> (표 1)

病因	病機
脾臟冷而痛	小兒夜間多啼哭 大多因脾寒而腹痛 可見面青手腹俱冷 不思乳食
邪熱乘心	若邪熱在心而治夜啼者 可見面紅舌赤 驚惕不安

(4) 韓醫學辭典<sup>13)</sup> (표 2)

病因	病機
脾寒	脾寒으로 인한 경우는 얼굴이蒼白하고 손과 腹部가 차며 젖을 먹기 싫어하고 배가 아프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운다.
心熱	心熱에 起因한 경우는 얼굴이 붉어지고 손과 腹部가 따뜻하며 뜨거운 입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등불을 보기 싫어하고 고개를 치켜들고 운다

(5) 小兒証治<sup>14,21)</sup> (표 3)

病因	病機	症狀
心熱	多爲母體有熱 (喜食辛辣煎炒炙爆食物, 或心火上炎所致) 小兒吮乳後 伏熱內蘊 熱邪上擾 則神明不安 故入夜則啼哭	面赤脣紅 身腹俱熱 小便短赤 多淚煩躁 夜哭不止 舌質紅 苔黃 指紋深紫
脾寒	多因脾臟虛寒 (其母貪冷 或喜食寒涼飲食) 至夜陰盛陽衰 脾臟之寒愈甚 寒氣滯則腹中作痛 故至夜啼哭不安	面色清白 手腹俱冷 不欲吮乳 曲腰不伸 入夜啼哭不止 舌淡苔白 指紋淡紅

(6) 醫學入門<sup>22)</sup> (표 4)

病因	病機
痰熱	仰身汗赤面頰月內夜啼驚惕抽擠者乃胎中受驚所致 大概有痰熱者多上伴夜仰身有汗而啼面赤心燥小便赤澀口中與腹皆熱也
虛寒	下夜曲腰必虛寒甚則內釣手足擠夜啼氣虛者 有胎寒及衣被過涼以致臟寒盤腸內釣肚腹脹痛啼則眼目上視手足抽擠蓋夜則作盛寒則作痛 甚則陰盛發躁凡下伴夜曲腰而啼面目清白捫腹覺冷必冒寒腹痛也

(7) 醫宗金鑑<sup>23)</sup> (표 5)

	病因	症狀
夜啼寒熱因胎受 須將形色辨分明 啼	脾寒	寒屬脾經面青白手腹俱冷曲腰疼 面色青白 手腹俱冷 不欲吮乳 曲腰不伸者 脾寒也
	心熱	面赤尿閉屬心熱 面赤脣紅 身腹俱熱 小便不利 煩躁多啼者 心熱也

(9) 丁茶山小兒科秘方<sup>6)</sup> (표 6)

分類	病因	症狀
上半夜啼	心熱과 胎熱의 所致	仰身有汗而啼 面赤 心燥 小便赤澁 口腹皆熱
下半夜啼	胎寒及衣服의 過涼으 로 臟腑에 寒氣가 投 入한 까닭	曲腰竄視 手足抽攢 夜則陰盛 寒則作痛이 되고 甚하면 陰盛發躁 가 됨으로 夜啼케되는 것이라
欲飲乳而便 啼	喉舌에 腫痛이 生하였 거나 또는 耳膿作痛하 는 所致	젖을 먹으려면 문득 울며 顙額이 皆熱한 것 은 口中에 만일 瘡이 없으면 반드시 喉舌에 腫痛이 生하였거나 또는 耳膿作痛이 있는 것

(10) 張氏醫通<sup>25)</sup> (표 7)

病因	病機
脾寒	夜屬陰陰勝則脾臟之寒愈盛脾爲至陰喜溫而惡寒寒則腹中作痛 故曲腰而啼得燈火其啼便止其候面青白手腹俱冷不思乳食亦曰胎寒
心熱	若見燈愈啼者心熱也心屬火見燈則煩熱內生兩陽相搏 故仰身而啼其候面赤手腹俱煖口中氣熱

(11) 五峰靑囊訣<sup>26)</sup> (표 8)

病因	病機
上伴啼	熱腹痛이니 面赤口熱하고 小便赤澁한것이니라.
下伴啼	冷腹痛으로 우는 것이니 面有蒼白色하고 手足이 冷寒하니라.

(12) 東醫小兒科學<sup>8)</sup> (표 9)

	分類	病因病機	症狀
夜啼寒熱因胎受 須將形色辨分明	下半夜啼	夜則陰盛하여 作痛한다.	寒屬脾經面青白 手腹俱冷曲腰疼
	上半夜啼	心熱不寧한 現象	面赤脣紅 多淚煩躁 遍體發熱 小便短赤 또는 口中氣熱 大便秘結腹煖 或有汗 仰身而啼

(13) 國譯 景岳全書<sup>27)</sup> (표 10)

病因	病機	症狀
脾寒	夜는 陰에 속하니 陰이 勝하면 脾臟의 寒이 오히려 盛해지는데 脾는 至陰이니 喜溫惡寒하므로 寒하면 腹中作痛	面青 手腹俱冷 不思乳食 하는 것이 이것이다. 역시 胎寒이라고도 한다.
心熱	등불이나 불을 보면 오히려 啼하는 것은 心熱이니 心은 火에 속하는데 火를 보면 煩熱이 內에서 生하여 兩陽이 相博하는 까닭으로 仰身하면서 啼 吐瀉로 亡津液하였거나 또는 稟賦腎陰이 不足하여 肝木을 滋養할 수 없거나 또는 乳母가 恚怒하여 肝火가 金을 侮한 때문이다.	面赤 手腹俱煖 口中氣熱

(14) 普濟方<sup>28,29)</sup> (표 11)

病因	病機
夫夜啼者 有陰陽兩證	陰者臟冷也 夜則陰盛 與冷相博 冷與臟氣交擊 故作痛而啼 經謂合夜至鷄鳴 天之陰 陰中之陰也 夜爲陰盛之時 凡病在陰也 至夜則邪氣盛 嬰兒氣弱 臟腑有寒 每至昏夜 陰寒與正氣相擊 則神不得安靜 腹中切痛 故令啼呼於夜 陽者臟熱 夜則陽衰 與熱相博 熱與臟氣交擊 故作痛而啼 又有冷熱之氣 與胎毒攻衝 亦令夜啼也 孩兒夜啼者 非是鬼神爲祟也 因胎熱伏心 冷則爲陽相刑 熱則與陽相搏 腹中燥悶 是以爲驚啼也
有觸犯禁忌 亦令兒夜啼者	當以符術治之

(15) 幼科釋謎<sup>30)</sup> (표 12)

諸家	病因病機
錢乙	寒夜啼者 脾臟寒冷 當夜陰盛之時相感 故痛而啼
	熱夜啼者 腹熱痛 夜啼面赤 脣焦便赤
龐安常	作心經有熱有虛治之
	月內夜啼驚搐者 乃胎中受驚所致

(17) 問答式 婦人小兒科學<sup>12)</sup> (표 13)

病因	病機	症狀
脾寒	脾는 陰中의 至陰으로 溫을 좋아하며 寒을 싫어한다, 만약 잘못 돌봐서 배가 寒氣를 맞고 寒邪가 內侵하면 脾寒이 발생하는데 夜間에는 陰이 勝하고 脾陽이 不振하므로 寒邪가 더욱 凝滯되어서 氣機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밤이 되면 腹痛으로 인해 아이가 운	症狀은 엎드려서 자고 허리를 굽히고 울며 四肢에 溫氣가 없고 食少 便溏 面色靑白 脣舌淡紅 舌苔薄白 脈象沈細 指紋靑紅한 것이 특징이다.
心熱	평소에 辛香하거나 炙燻한 食物을 함부로 먹거나 溫熱한 藥을 많이 먹인 까닭에 伏熱이 鬱滯되어서 體內에 蘊積된다. 心은 火를 주관하고 陽에 속하는데 밤이 되면 飲은 盛하나 陽은 衰하고 陽이 衰하면 無力해지므로 邪熱과 싸워서 正氣가 이기지 못하므로 邪熱이 心으로 들어가서 心經에 열이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夜間에 煩躁하고 운다.	症狀은 仰臥位로 자기를 좋아하고 불을 켜면 더욱 심하게 울며 煩躁不安하고 赤色 小便이 짧게 排出되며 혹은 大便秘結 面赤脣紅 舌尖紅苔白 脈數有力 指紋靑紫한 등이다.
驚駭	小兒는 神氣가 겁이 많고 약하며 心氣는 부족하므로 낮선 사물을 보거나 낮선 소리를 듣게 되면 心神이 편하지 않고 神志가 不安하며 꿈속에서 자주 놀라며 울고 밤에도 놀라서 울며 잠을 못 잔다.	症狀은 편히 자지 못하고 때때로 놀라며 脣과 面色이 靑色이 되었다가 白色이 되었다고 하고 포근히 안는 것을 싫어하는 등이다. 舌과 脈에 모두 이상한 변화가 없지만 或 夜間에는 脈이 弦急하면서 數하다.
기타	飢渴 혹은 痒痛 친한 사람이나 좋아하는 물건이 잠깐 없어지거나 마음이 즐겁지 않은 등의 原因으로도 발생하므로 臨床에서는 其他原因으로 일어나는 啼哭에 대하여 鑑別해야 한다.	

(18) 小兒醫方<sup>5)</sup> (丑 14)

分類	病因病機
上半夜啼	仰身有汗而啼面赤心燥小便赤澁口中與腹皆熱是心熱及胎熱也
下伴夜啼	曲腰竄視手足搐擠是由胎寒及衣被過冷以致臟寒盤腸內釣肚腹脹痛 蓋夜則陰盛寒則作痛甚則陰盛發燥
欲飲乳而便啼	身額皆熱者看其口中若無瘡必喉舌腫痛亦有耳膿作痛

(19) 小兒衛生總微論方<sup>32)</sup> (丑 15)

病因	症狀
冷	謂脾臟寒則腹痛而啼 其候面青白 手冷腹肚冷 口中氣亦冷 曲腰而啼 不肯吮乳 又有從生下多啼 入夜則甚者 此胃寒也 亦曰胎寒 <<聖濟經>>言積冷而夜啼 夜則爲陰 冷則作痛 故夜間痛甚 令兒啼哭也
熱	心臟熱則煩躁而啼 其候面赤 小便赤 口中氣熱 心腹亦煖 仰身而啼 不肯吮乳 又有多饒驚悸惕跳 或睡中忽然叫啼 此風熱也 亦曰驚啼 心主熱 其候驚 故熱則生驚 又心爲火 熱則火旺 故熱邪燥甚 令兒啼哭也
邪祟	有鬼氣所持 其候睡臥不穩 或作疼痛 且鬼祟也 陰物也 入夜則旺 小兒精神怯弱 血氣嫩微 夜間被鬼所持 故令兒啼哭也
客忤蟲動 重舌口瘡等病 亦皆能爲夜啼	

(20) 幼幼集成<sup>33)</sup> (丑 16)

病因	病機
臟寒	臟寒者 陰盛於夜 至夜則陰極發躁 寒甚腹痛 以手按其腹則啼止 起手又啼 外證面青手冷 口不吮乳 夜啼不歇
心熱	心熱煩啼者 面紅舌赤 或舌苔白澁 無燈則啼稍息 見燈則啼愈甚
神不安	神不安而啼者 睡中驚悸 抱母大哭 面色紫黑 蓋神虛驚悸
拗哭	小兒初生 性多執拗 凡有親狎之人 玩弄之物 一時不見 其心不悅而哭爲之拗哭 凡夜啼見燈卽止者 此爲點燈習慣 乃爲拗哭 實非病也 夜間切勿燃燈 任彼啼哭 二三夜自定



(21) 東醫寶鑑<sup>11,34)</sup> (丑 17)

病因	症狀
寒	寒則腹痛而啼 面青白口有冷氣手足冷腹亦冷曲腰而啼 下伴夜啼者蓋夜則陰盛寒則作痛所以夜半後啼也
熱	熱則心燥而啼 面赤小便赤口中熱腹煖或有汗仰身而啼 上伴夜仰身有汗而啼面赤身熱者必痰熱也
口瘡重舌	吮乳不得口到乳上即啼 身額皆微熱急取燈照口若無瘡則舌必重也照 口瘡重舌類治之其啼自止
客忤	犯客忤夜啼 或觸生人氣忤犯而啼有曰啼驚 夜必黃昏前後尤甚

(22) 濟衆新編<sup>35)</sup> (丑 18)

病因	症狀
寒	腹痛而啼面青白口有冷氣手足腹冷曲腰而啼 又下伴夜啼
熱	心燥而啼面赤口中熱尿赤腹煖或有汗仰身而啼 又上伴啼必痰熱也
口瘡	
客忤	

(23) 陳無擇三因方<sup>36)</sup> (丑 19)

病因	症狀
寒	腹痛而啼面青白口有冷氣腹亦冷曲腰而啼此寒證也
熱	心燥而啼面赤小便赤口中熱腹煖啼時或有汗仰身而啼此熱證也
重舌口瘡	吮乳不得口到乳上則啼身額皆微熱急取燈照口若無瘡舌必腫也
客忤	見生人氣忤犯而啼也

(24) 惠庵醫方<sup>37)</sup> (丑 20)

病因	症狀
寒	腹痛而啼面青白口有冷氣手足冷亦腹亦冷曲腰而啼 又曰下伴夜啼者蓋夜則陰盛寒則作疼
熱	心燥而啼面赤小便赤口中熱腹煖或有汗仰身而啼
口瘡重舌	吮乳不得口到乳上即啼 身額皆微熱 急取燈類照口若無瘡則必重舌也
客忤	犯客忤夜啼或觸生人氣忤犯而啼有口啼驚夜必黃昏前後尤甚 月內夜啼驚搖者由胎中受驚所致

(25) 及幼方<sup>4)</sup> (표 21)

病因	症狀
寒	새벽에 많이 우는 것은 寒이다. 얼굴이 푸르고 입김이 차면 손발과 배가 싸늘하며 허리를 꼬부리고 눈물없이 울며 손발을 끌어당기고 눈을 치솟는다. 대체로 밤이면 찬 기운이 성하여 아파한다. 더 심하면 음이 성하고 조증이 일어나므로 밤에 울거나 혹은 옷을 너무 서늘하게 입혀서 손이 차고 盤腸症이 되고 꼬부라들며 배가 불어나고 아픈 것이다.
熱	초저녁에 놀라면서 우는 것은 熱이다. 얼굴이 붉고 입김이 더우며 손발과 배도 더우며 몸을 반듯이 하고 땀이 나며 가슴이 뛰고 울다가 새벽에 그친다. 아이 어머니가 술이나 국수를 많이 먹었거나 혹은 아이를 더운 곳에 두어서 발병한것도 있다.
口瘡重舌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하나 젖이 입에 닿으면 곧 울며 몸과 이마가 다 더운 아이는 그입을 보아 현대가 있으면 목구멍이나 혀가 부어서 아픈 것이다.
客忤症	아이가 밤낮 울되 반드시 해질 무렵을 전후하여 더욱 심한 것은 客忤中惡이다.

(26) 症狀鑑別治療<sup>3)</sup> (표 22)

病因	病機	症候
虛寒(脾經虛寒啼泣)	아이를 적절하게 돌보지 못해 배를 차갑게 하여 寒邪가 脾를 侵襲 脾에 寒이 發生한 때문이다. 夜間은 陰盛하여 寒邪가 凝滯하기 때문에 夜間에 腹痛이 일어나고 夜啼가 發生한다.	夜間啼哭하여 소리가 높아지든가 낮아지며 울어도 눈물은 나오지 않고 몸을 屈曲하든가 伏臥位를 좋아하며 顏色이 푸르고 손과 배가 冷하고 별로 젖을 빨지 않고 便溏 口脣淡舌質淡白 脈沈細 指紋淡紅하고 沈滯
心熱(心經積熱啼哭)	心熱의 啼哭은 乳母가 辛辣芳香 溫熱한 飲食을 嗜好하든가 溫熱藥을 多服함으로써 熱邪가 停積되어 心으로 上炎한 것이다. 夜間에는 陰盛하여 陽衰가 되고 陽衰로 인해서 邪熱을 抑制하지 못하여 邪熱이 心에 乘해 心神不寧이 되어 發生한다.	夜間에 啼泣하며 울음에 힘이 있고 燈火를 보면 泣聲이 커지며 仰臥를 좋아하며 칭얼거리며 심하게 움직이고 小便短赤 便秘 顔面紅潮 口脣紅舌尖紅 舌苔薄 脈數有力 指紋紫

心血虛(心虛稟弱啼哭)	先天稟賦不足이나 病後의 消耗로 心血이 不足되어 神을 濡養할 수 없어서 發生한다.	夜泣하되 泣聲에 힘이 없으며 驚얼거리고 잘 놀라며 消瘦 微熱 口脣淡紅 舌尖紅 舌苔少 또는 無苔 脈虛數 指紋淡紅
驚恐(受驚 恐懼啼哭)	심하게 놀라든가 또는 恐怖 때문에 發生한다.	夜泣하며 눈물이 많고 睡眠中에도 놀라기를 잘 하고 몸이 攣攣 놀라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입에서 거품을 물고 口脣 顏色이 푸르다가 희어지든가 하며 母親에 게 달라붙고 大便이 靑綠色 舌은 正常 脈은 夜間에 弦數 指紋은 靑紫를 띠운다

(27) 吳氏兒科學<sup>38)</sup> (丑 23)

病因	症狀
因寒而啼者	脾氣寒冷 陰盛於夜則腹中作痛 故面靑手冷腰曲而啼
因熱而啼者	心火煩盛面赤手煖 口中氣熱 仰身而啼 見燈火愈甚
因滯而啼者	乳食停滯作痛 啼而不哭 直聲來往 淚液殊少
因驚而啼者	心氣不足 神不安穩 哭而不啼 連聲多淚

(28) 幼科釋謎<sup>30)</sup> (丑 24)

諸家	病因	病機
錢乙	小兒驚啼	睡夢中忽然啼而驚覺 邪熱乘心也
	寒夜啼	脾臟寒冷 當夜陰盛之時相感 故痛而啼也
	熱夜啼	腹熱痛 夜啼面的 脣焦便赤
王履	寒	寒則腹痛而啼 面靑白 口有冷氣 手足腹俱冷 曲腰而啼
	熱	熱則心燥而啼 面赤 小便赤 口中熱 腹煖 或有汗 仰身而啼 或上半夜仰身有汗而啼 面赤身熱者 必痰熱也 到曉方息
	口瘡重舌	吮乳不得 口到乳上則啼 身額皆微熱 急取燈照之 依口瘡重舌爲治
	客忤	見非常之物 與未識之人 或經神廟佛寺 與鬼神氣相忤而啼有曰啼驚 夜必黃昏前後尤甚

(2) 小兒藥證直訣類証釋義<sup>19,20)</sup> (丑 25)

病因	病機	治法治方
脾寒	脾臟冷而痛也	可用溫中之劑治之 當餘溫中藥及以法禳之 花火膏主之
心熱	邪熱乘心也	可用花火膏調乳吮之

(3) 小兒証治<sup>14)</sup> (표 26)

病因	治法	治方
心熱	清心瀉火	導赤散加減
脾寒	溫中散寒	理中湯

(4) 醫學入門<sup>22)</sup> (표 27)

分類	治法治方	
上伴夜啼	五分猪乳膏琥珀防風 各一錢朱砂五分為末用猪乳汁調一字抹兒口中或保命丹金箔鎮心丸	
	驚有痰者	抱龍丸
	驚有熱者	涼驚丸龍腦安神丸
	尋常邪熱夜啼者	用燈花三顆為末燈心煎湯調抹兒口汁中以乳汁送下日二服
下伴夜啼	必虛寒甚則內釣手足擠夜啼氣虛者四君子湯加山藥扁豆 挾熱加黃連竹葉血虛焦啼者用當歸為末乳汁調服 氣血俱虛腹痛夜啼者用黃芪當歸赤芍木香甘草等分為末每桃少許著浮乳頭上使吮乳服之 所以夜啼宜保命丹 輕者益黃散外炒麥麩蔚之	
其他	有因驚受風邪而啼者	二活散羌活獨活各二分檳榔天麻麻黃甘草各一分水煎服或加南星為末蜜調可貼額門
	有傷乳食作痛而啼者	消乳食丸
	客忤中惡哭黃昏有日夜驚啼必黃昏前後尤甚者乃客忤中惡	治詳後客忤條
	飲乳方啼爛口舌有欲飲乳到口便啼身額皆熱者看其口若無瘡必喉舌腫痛	冰梅丸薄荷煎治之

(5) 醫宗金鑑<sup>23)</sup> (표 28)

分類	治方
熱用導赤寒鈎藤	心熱也 導赤散主之
	脾寒也 鈎藤飲主之
若無寒熱表裏証	古法蟬花散最精

(6) 丁茶山小兒科秘方<sup>6)</sup> (丑 29)

分類	病因病機	治法治方
上半夜啼	心熱과 胎熱의 所致	川黃連甘草各三分 竹葉三片煎服 牛黃少許調服亦可 又蟬退去足三分 右水煎하여 鏡面朱砂一分을 調服 又燈花三四枚를 燈心少許煎水에 調勻하여 乳上에 발라서 令兒吮之 導赤散 又膽星抱龍丸一丸을 溫水에 調服
下半夜啼	胎寒及衣服의 過涼으로 臟腑에 寒氣가 投入	白芍藥炒一錢 桂心五分 丁香二分 水煎服(乳香細末一分調服亦可)
欲飲乳而便啼	喉舌에 腫痛이 生하였거나 또는 耳膿作痛하는 所致.	其類를 따라 治療

(7) 張氏醫通<sup>25)</sup> (丑 30)

病因病機	治方
曲腰而啼得燈火其啼便止其候面青白手腹俱冷不思乳食亦曰胎寒	益黃散加鉤膝
仰身而啼其候面赤手腹俱煖口中氣熱	導赤散加黃連麥門冬
面色白而黑睛少屬腎氣不足至夜陰虛而啼也	六味丸
驚啼者 邪氣乘心也 哭而多淚是驚也 啼而無淚是痛也	獨參湯 團參散 七福飲 秘旨安神丸
心火不足而驚啼者	安神丸
心火熾盛	導赤散(木火相博加柴胡梔子)
肝血不足	六味丸

(8) 五峰青囊訣<sup>26)</sup> (丑 31)

分類	治方
上伴夜啼	生地黃 木通 黃芩 甘草一錢 黃連麥門冬車前子五分
下伴夜啼	六神散 白茯苓 白扁豆炒二錢 人參 白朮 山藥一錢 炙甘草一錢 神曲麥芽五分

(9) 東醫小兒科學<sup>8)</sup> (표 32)

	分類	治法	治方
面赤尿閉屬心熱 熱用導赤寒釣藤	上半夜啼	清心安神	導赤散
	下半夜啼	活血行氣定痛	六神散 益黃散 釣藤飲
若無寒熱表裏證 古法蟬花散最精	小兒가 다만 夜啼만 하고 寒象과 熱象이 없으면 蟬花散으로 效果를 얻는다.		

(10) 國譯 景岳全書<sup>27)</sup> (표 33)

病因病機	治法治方
曲腰而啼 面青 手腹俱冷 不思乳食	鈎藤飲 寒이 甚하면 理中丸
허리를 구부리고 울부짖는데 울어도 눈물이 없는 것은 대부분 腹痛때문	木香散 또는 溫胃飲 加木香
脾腎의 寒이 심한데다가 滯를 겸하여서 作痛	陳氏十二味異功散
만약 乳食을 많이 해서 停滯하여 作痛하는데 邪가 實하고 虛는 없으면서啼	保和丸 溫胃飲加減으로 主하고 甚하면 消食丸

(11) 聖濟總錄<sup>29)</sup> (표 34)

症候	治方
治小兒夜啼 至明不得寐	芎藭散
治小兒夜啼腹痛	芍藥散
治小兒夜啼不安 此由腹痛 故至夜輒劇 狀似鬼祟	五味子湯
治小兒夜啼腹痛 狀如鬼祟	桂心湯
治小兒夜啼	前胡丸 伏龍肝散 立效散 蓮心散
治小兒夜啼不止 面青腹脹 是中客忤	麝香散
治小兒夜啼不止 腹中疝痛	黃芪丸
治小兒夜啼 鷄鳴即止	代赭丸
又有觸犯禁忌 亦令兒夜啼者	當以符術治之

(12) 問答式 婦人小兒科學<sup>12)</sup> (표 35)

病因	症狀	治法	治方
脾臟虛寒型	症狀은 엎드려서 자고 허리를 굽히고 울며四肢에 溫氣가 없고 食少便溏 面色靑白 脣舌淡紅 舌苔薄白 脈象沈細 指紋靑紅한 것이 특징이다.	溫脾散寒	烏藥散加味을 쓰는데 藥物은 烏藥 香附子 當歸 白芍 高良薑 艾葉
心經積熱型	症狀은 仰臥位로 자기를 좋아하고 불을 켜면 더욱 심하게 울며 煩躁不安하고 赤色 小便이 짧게 排出되며 혹은 大便秘結 面赤脣紅 舌尖紅苔白 脈數有力 指紋靑紫한 등이다.	清心導赤	< 導赤散 加減 >로 藥物은 生地黃 艾葉 梔子 黃連 木通 甘草梢 燈心草 등을 쓴다.
驚駭恐懼型	症狀은 편히 자지 못하고 때때로 놀라며 脣과 面色이 靑色이 났다가 白色이 났다가 하고 포근히 안는 것을 싫어하는 등이다. 舌과 脈에 모두 이상한 변화가 없지만 或 夜間에는 脈이 弦急하면서 數하다.	鎮驚安神	<朱砂安神丸加減>으로 藥物은 朱砂<研細末해서 沖服한다.> 當歸 生地黃 白芍 牡蠣 <先煎> 龍腦(先煎) 黃連 甘草

(13) 小兒醫方<sup>5)</sup> (표 36)

分類	症狀	治方
上半夜	仰身有汗而啼面赤心燥小便赤澁口中與腹皆熱是心熱及胎熱	川黃連 甘草 竹葉 煎服 蟬退右煎水鏡面朱砂調服 導赤散 膽星抱龍丸一丸 溫水調服
下半夜	多啼必曲腰竄視手足搐攣是由胎寒及衣被過冷以致臟寒盤腸內釣肚腹脹痛蓋夜則陰盛寒則作痛甚則陰盛發燥	白芍藥 桂心 丁香 同煎服
口瘡重舌	欲飲乳而便啼身額皆熱者看其口中若無瘡必喉舌腫痛亦有耳膿作痛而啼	從其類而治之

(14) 幼幼集成<sup>33)</sup> (丑 37)

原因	症狀	治方
臟寒	陰盛於夜 至夜則陰極發躁 寒甚腹痛 以手按其腹則啼止 起手又啼 外證面青手冷 口不吮乳 夜啼不歇	加味當歸散
心熱煩啼	面紅舌赤 或舌苔白澁 無燈則啼稍息 見燈則啼愈甚	導赤散加麥冬 燈心 甚則加川連 膽草
神不安而啼	睡中驚悸 抱母大哭 面色紫黑 蓋神虛驚悸	安神丸定其心志 有吐瀉後及大病後夜啼 亦由心血不足 治同上
拗哭	凡夜啼見燈即止者 此爲點燈習慣 實非病也	夜間切勿燃燈 任彼啼哭 二三夜自定

(15) 東醫寶鑑<sup>11,34)</sup> (丑 38)

原因	症狀	治方
寒	寒則腹痛而啼面青白口有冷氣手足冷 腹亦冷曲腰而啼 又曰下伴夜啼者蓋夜則陰盛寒則作痛所以夜半後啼也	益黃散 六神散
熱	熱則心燥而啼面赤小便赤口中熱腹煖 或有汗仰身而啼 又曰上伴夜仰身有汗而啼面赤身熱者必痰熱也到曉方息	導赤散加黃芩煎服通心飲亦可
口瘡重舌	吮乳不得口到乳上即啼 身額皆微熱急取燈照口若無瘡則舌必重也	照口瘡重舌類治之其啼自止
客忤	客忤者犯客忤夜啼或觸生人氣忤犯而啼有曰啼驚夜必黃昏前後尤甚乃客忤中惡也	錢氏安神丸主之依客忤法治之
	月內夜啼驚搐者乃胎中受驚所致	豬乳膏鎮驚散有痰者抱龍丸
	小兒夜啼作心經有熱有虛	燈心散黃連飲蟬花散
	夜啼不止	蟬蛻二七枚去足爲末入朱砂末一字密調送下



(16) 濟衆新編<sup>35)</sup> (丑 39)

症狀	治方
寒則腹痛而啼面青白口有冷氣手足腹冷 曲腰而啼啼又下伴夜啼	六神散
熱則心燥而啼面赤口中熱尿赤腹煖或有 汗仰身而啼又上伴啼必痰熱也到曉方息	導赤散加黃芩
月內夜啼驚搖者由胎中受驚有痰	抱龍丸
夜啼不止	蟬蛻二七枚去足爲末朱砂一字蜜調下
治腹冷痛夜啼	六神散 白茯苓 白扁豆炒 各二錢 人蔘 白朮 山 藥炒 各一錢 甘草炙七分 右麤末每取一 錢 薑三片 棗二枚煎服
治胎驚夜啼	鎮驚散 朱砂 牛黃 麝香 各少許右合細研豬乳汁 調稀抹入口令嚥下
治小兒心燥夜啼	燈心散 燈花三四顆研細以燈心煎湯調塗口中以乳 汁下日三 一方 燈花七枚礬砂一字 朱砂 少許 研細蜜調抹脣上立止
治心經有熱夜啼	黃連飲 人蔘二錢 黃連一錢五分 甘草炙五分 青 竹葉十片 薑一片煎取汁灌口中

(17) 惠庵醫方<sup>37)</sup> (丑 40)

病因病機	治方
寒則腹痛而啼面青白口有冷氣手足冷亦腹亦冷曲腰而啼又曰下伴夜啼者蓋夜則陰盛寒則作疼	六神散
熱則心燥而啼面赤小便赤口中熱腹煖或有汗仰身而啼	
口瘡重舌則吮乳不得口到乳上即啼身額皆微熱 急取燈類照口若無瘡則必重舌也	照口瘡重舌類治之其啼自之止
客忤者犯客忤夜啼或觸生人氣忤犯而啼有口啼驚夜必黃昏前後尤甚者乃客忤中惡也	錢氏安神丸主之 依客忤法治之
月內夜啼驚搖者由胎中受驚所致	宜用鎮驚散 有痰抱龍丸 夜啼不止蟬退二十七枚下半載去足爲末朱砂一字爲末蜜調送下
治腹冷痛夜啼	六神散 白茯苓 白扁豆炒 各二錢 人蔘白朮山藥炒各一錢 甘草炙七分 右爲細末 每取一錢 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治胎驚夜啼	鎮驚散 朱砂牛黃麝香各少虛又合研爲細末 狙乳汁塗一字扶兒口中令嚥之下
治心經有熱夜啼	黃連飲 人蔘二錢 黃連一錢半 甘草炙五分 青竹葉十片薑一片 右剉 水煎取濃汁 入九中

(18) 及幼方<sup>4)</sup> (표 41)

病因	症狀	治法治方
寒	새벽에 많이 우는 것은 寒이다. 얼굴이 푸르고 입김이 차면 손발과 배가 싸늘하며 허리를 꼬부리고 눈물없이 울며 손발을 끌어 당기고 눈을 치긋는다. 대체로 밤이면 찬 기운이 성하여 아파한다. 더 심하면 음이 성하고 조증이 일어나므로 밤에 울거나 혹은 옷을 너무 서늘하게 입혀서 손이 차고 盤腸症이 되고 꼬부라들며 배가 불어나고 아픈 것	白僵散, 益黃散 밀가루를 초하여 배꼽에 찜질하는 것이 좋다.
熱	초저녁에 놀라면서 우는 것은 熱이다. 얼굴이 붉고 입김이 더우며 손발과 배도 더우며 몸을 반듯이 하고 땀이 나며 가슴이 뛰고 울다가 새벽에 그친다.	導赤散에 黃芩을 가미하거나 通心飲 龍腦安神丸이 좋다. 아이 어머니가 술이나 국수를 많이 먹었거나 혹은 아이를 더운 곳에 두어서 발병한 것도 있다.
口瘡重舌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하나 젖이 입에 닿으면 곧 울며 몸과 이마가 다 더운 아이는 그입을 보아 현대가 있으면 목구멍이나 혀가 부어서 아픈 것이므로	牛黃涼膈丸 혹은 薄荷湯에 타서 혀 위에 발라준다.
客忤	아이가 밤낮 울되 반드시 해질 무렵을 전후하여 더욱 심한 것	
驚啼	아이가 밤에 우는데 놀라면서 담이 있는 것	牛黃抱龍丸
	놀라면서 열이 있는 것	涼驚丸 錢氏安神丸
	氣血이 다 虛하고 배가 아파서 밤에 우는 것	歸香散

(19) 症狀鑑別治療<sup>3)</sup> (표 42)

原因	治法	治方
虛寒의 啼泣(脾經虛寒啼泣)	溫脾散寒	釣藤飲 川芎 當歸 茯神 白芍藥 茯苓 甘草 木香 釣藤 各 1錢 紅棗 生薑 水煎하여 每服 1錢
心熱의 啼哭(心經積熱啼哭)	清心導熱	導赤散
心血虛의 啼哭(心虛稟弱啼哭)	養血寧神	安神丸
驚恐의 啼哭(受驚恐懼啼哭)	鎮驚安神	朱砂安神丸

(20) 吳氏兒科學<sup>38)</sup> (표 43)

原因	症狀	治方
因寒而啼者	脾氣寒冷 陰盛於夜則腹中作痛 故面青手冷腰曲而啼	炙黃芪當歸甘草赤木香等分爲末 塗乳頭上令兒吮之
因熱而啼者	心火煩盛面赤手煖 口中氣熱 仰身而啼 見燈火愈甚	釣藤茯神甘草燈心辰砂木通各一錢煎湯服
因滯而啼者	乳食停滯作痛 啼而不哭 直聲來往 淚液殊少	生麥芽山查各一錢煎湯服
因驚而啼者	心氣不足 神不安穩 哭而不啼 連聲多淚	天王補心丹以調之 單方蟬退用下伴載不拘多少 研末薄荷湯送下

(21) 幼科釋謎<sup>30)</sup> (표 44)

諸家	病因病機	治法治方
錢乙	小兒驚啼者 謂睡夢中忽然啼而驚覺 邪熱乘心也	安神丸
	寒夜啼者 脾臟寒冷 當夜陰盛之時相感故痛而啼也	錢氏當歸丸
	熱夜啼者 腹熱痛 夜啼面赤 脣焦便赤	人蔘湯下三黃丸
王履	寒則腹痛而啼 面青白 口有冷氣 手足腹俱冷 曲腰而啼	六神散 益黃散
	熱則心燥而啼 面赤 小便赤 口中熱 腹煖 或有汗 仰身而啼 或上半夜仰身有汗而啼 面赤身熱者 必痰熱也 到曉方息	導赤散加黃芩
	口瘡重舌 則吮乳不得 口到乳上則啼 身額皆微熱	急取燈照之 依口瘡重舌爲治
	客忤者 或見非常之物 與未識之人 或經神廟佛寺 與鬼神氣相忤而啼 有曰啼驚 夜必黃昏前後尤甚者	錢氏安神丸
龐安常	心經有熱有虛	燈心散 黃連飲 蟬花散
	月內夜啼驚搐者 乃胎中受驚所致	鎮驚散 有痰者 抱龍丸

다리를 꼬부리고 계속 괴롭게 운다.<sup>1,40)</sup>  
<sup>41)</sup> 이런 산통은 생후 2-6주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몹시 걱정하게 하는데 흔히 저녁식사때부터 매일 3-4시간씩 몹시 울며 무슨 수단을 써도 울음을 계속하고 밤 10-11시에는 잠이 들고 만다.

또 이 산통은 오후 2-6시 사이라든지 다른 시간에도 생기는데 토하지도 않고 설사도 없다. 흔히 3-6개월 사이의 어린이가 저녁때 또는 밤중에 울기 시작하면 달랠 길이 없는데 일단 그치면 또 멀쩡하다.<sup>41)</sup>

이 콜릭은 두서너달이 지나는 동안에 차차 경해지고 3개월후에는 씻은 듯이 없어져버려 3개월산통이라고도 하지만 4-6개월까지 계속되는 어린이도 간혹 있다.<sup>1)</sup>

대개 식욕도 좋고 외부적으로 건강하게 보이던 영아에서 보이며 가스가 많은 점 외에는 그 밖에 다른 증상이나 진찰소견은 없다.<sup>40)</sup>

### (3) 治法

어린이의 배속에 가스가 찼을 때 힘을 써서 가스가 나오고 대변을 보면 우는 것이 일단 멈춘다. 그렇다고 정상적 대변을 관장으로 배설하게 할 필요는 없다. 갑자기 장관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끝나는 3개월후부터는 콜릭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구토나 설사나 열이 없으면 어머니는 안심하고 달래주기만 하면 된다.<sup>1)</sup>

## 2) 악몽 및 야경증

### (1)야경증

小兒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대개 1-12세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공황상태를 보이면서 깨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잠이 든 후 30-200분 정도 경과한 후에 나타나며 1-10분정도 지속이 된다. 대개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병리가 동반되어 있는 수가 많다.<sup>10)</sup>

원인은 발달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낮에 격은 공포감과 타격, 심한 피로상태 및 수면 전에 삼환계 항울제 또는 항정신약물을 복용한 경우에 흔히 나타나며 일과성일 때가 많다.<sup>1,10,40)</sup>

비렘(non-REM) 수면중에 일어나는데 호흡이 가쁘고 동공이 확산되며 땀이 많이 나고 빈맥등 자율신경계의 흥분이 있고 아동은 일어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주위에 대한 감각이 없다.<sup>10,40)</sup> 멀쩡하게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정신이 안들어 주위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흥분상태로 소리를 치고 울고 야단이지만 이 이상한 행동을 자신도 모르고 깨도 금방 제정신이 들지 않는다.<sup>1,41,42)</sup> 다음날 아침에 전날 밤의 야경증을 기억하지 못한다.<sup>1,40,41,42)</sup>

그러나 야경증은 부모의 이야기로 진단할 뿐 정신심리학적으로나 신체검사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야경증의 증세는 여러날을 두고 반복해서 같은 증세가 나와서 부모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야경증 후에 몽유병이 계속되는 수도 있다. 야경증은 남아에 더 많고 가족력이 있으며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하

고 평안하면 어린이들이 야경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다.<sup>1,42)</sup> 야경증이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만성 불안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신과적 진찰이 필요하다.<sup>40)</sup>

악몽과의 차이는 악몽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데 반하여 야경증에서는 기억상실이 있다는 점과 악몽에서는 맥박 호흡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sup>10)</sup>

감별진단은 악몽, 입면성환자, 정신운동성 간질과의 감별이 필요한데 특히 정신운동성 간질과는 반드시 수면뇌파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적절한 치료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와 같이 자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것은 함께 잠으로써 수면중 받은 신체적인 자극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이런 경우 서서히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방에서 자도록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0)</sup>

## (2) 악몽

영아기의 수면장애는 영아의 까다로운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고 부모의 불화나 다른 불안증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유아기 아동은 잠이 드는 것을 부모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로 인한 분리불안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학령기 아동에서는 도둑 잠음 천둥번개 유괴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sup>40)</sup>

악몽은 대개 불안이 원인이 되거나<sup>1</sup>

<sup>0,40)</sup> 또는 아이가 허약해졌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흔히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무서운 꿈을 꾸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생활 주변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sup>42)</sup>

악몽은 여아에 더 많고 10세 이전에 시작하는데<sup>40)</sup> 대개 악몽은 수면의 중간 또는 후반기에 나타나는데 불안의 정도가 경미하며 공황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아침에 악몽의 내용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 야경증과는 구별점이 된다.<sup>1,10)</sup>

대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를 지나면 저절로 치유된다.<sup>42)</sup>

## 3) 야경증 및 악몽의 치료<sup>1)</sup>

어린이가 자다가 울면 급히 달려가 따뜻한 품에 안아주고 조용히 위로하며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때는 아주 완전히 깨우기 위해 물이나 주스를 한컵 먹여주거나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하고 완전히 깨면 자리에 누이고 그 다음날 할 일(재미있고 반가운 계획)을 알려주고 잠이 들때까지 옆에서 지켜준다.

어린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의 긴박감 불안감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 응어리를 풀어주어야 한다. 새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학교가 바뀌거나 동생이 출생해서 불안하고 질투심이 따움을 괴롭힐 때 어린이 마음 속의 불만과 공포와 불안이 야경증의 원인이 된다.

부모와 자세히 대화를 나누어서 왜 어린이가 야경증이 생겼나 연구해야

하며 어린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씻어주고 근본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료는 신경안정제, 진정제로 가능하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어린이 마음속에 불안 갈등을 순리로 풀어주는 일이다.

### Ⅲ. 考察

어린이는 출생순간에 크게 소리를 내고 운다. 태어난 순간부터 호흡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폐에 공기가 끌고루 퍼져 들어가서 호흡이 충분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어린이는 배고프거나 외롭거나 몸이 아프거나 대소변을 봐서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불쾌해서 우는데, 우는것이 유일한 호소방법이어서 어머니를 찾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즉 小兒啼哭은 小兒의 本能的인 反應의 하나로 欲求나 苦痛에 대한 反應인 것이다.<sup>2,3)</sup> 韓醫學에서는 “初生月內多啼者吉 胎熱胎毒胎驚得散 且無奇疾”<sup>4,5,6)</sup>이라 하여 初生兒의 啼哭은 正常的인 것이며 新生兒 疾患을 豫防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강조하였다.

睡眠을 충분히 取하는 것은 小兒가 健康을 維持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啼哭不止하여 睡眠이 不足한 경우에는 正常的인 生長發育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sup>7)</sup> 그러므로 小兒의 苦痛에 대한 反應이며 아울러 睡眠不足을 招來할 수 있는 夜啼症은 辨證求因을 통한 積極적인 治療가 필요한 病症의 하나라 할 수 있다.

夜啼는 隨의 <<諸病源候論, 夜啼候>>에서 “小兒夜啼者 臟冷也 夜陰氣盛 與冷相博則冷動 冷動與臟氣相并 或煩或痛 故令小兒夜啼也”라 하여 처음 言及되었으며, 以後 宋代의 <<小兒藥證直訣>>에서 “脾臟冷而痛”이라 하여 夜啼의 原因에 關하여 言及하였고 明代의 <<醫學綱目>>에서는 “小兒夜啼有四證 一曰寒 二曰熱 三曰重舌口瘡 四曰客忤”라 하여 夜啼四證에 關한 言及이 있었다.<sup>15)</sup>

夜啼는 小兒가 낮에는 정상인데 밤이 되면 아무런 까닭없이 울거나<sup>8,9,10,11,12,13,14,15)</sup> 혹은 밤 일정한 시간에 우는 것을 말하며, 生後 6個月以內의 嬰幼兒에게 많이 나타난다.<sup>3,12,15)</sup> 심하면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sup>8)</sup> 日常的인 飲食 起居 및 着衣 等 不適當한 것으로 因한 啼泣은 本症에 포함하지 않는다.<sup>3)</sup>

夜啼의 原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分類에 따라 一種부터 五種까지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幼科類萃>><sup>17)</sup>에서 “夜啼小兒臟冷也 陰盛於夜則冷動 冷動則爲陰極發燥 寒盛作疼”라 하고, <<巢氏諸病源候論>><sup>18)</sup>에서는 “小兒夜啼者 由臟冷故也 夜陰氣盛 與冷相博 則冷動 冷動與臟氣相并 或煩或痛”이라 하여 夜啼의 原因을 臟冷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小兒夜啼의 原因을 二種으로 分類한 경우는 脾寒과 心熱로 나눌 수 있다. <<小兒藥證直訣類証釋義>><sup>19,20)</sup>에서는 脾臟冷而痛한 경우와 邪熱乘心한 경우로 分類하였으며, <<小兒證治>><sup>14,23,24,25,27,30)</sup>에서는 脾寒과 心熱로 分類하였

고 <<醫學入門>><sup>22)</sup>에서는 病因을 虛寒과 痰熱로 보았다. 특히 <<小兒證治>><sup>14)</sup>에서 心熱에 의한것은 “多爲母體有熱(喜食辛辣煎炒炙爆食物, 或心火上炎所致) 小兒吮乳後 伏熱內蘊 熱邪上擾 則神明不安 故入夜則啼哭하며 脾寒으로 因한것은 多因脾臟虛寒(其母食冷 或喜食寒涼飲食) 至夜陰盛陽衰 脾臟之寒愈甚 寒氣滯則腹中作痛 故至夜啼哭不安”이라 하여 母體로부터의 影響에 관하여 強調하였다. 時刻的인 面에서 살펴보면 上伴夜啼와 下伴夜啼로 나눌수 있는데 上伴夜啼는 子正以前에 나타나는 것으로 痰熱, 心熱에 의하며 下伴夜啼는 子正以後에 나타나는 것으로 脾寒에 의한다고 하였다.<sup>8,22,26)</sup> 그러므로 二種分類는 寒과 熱로 大別되며 각각 脾寒은 “夜屬陰陰勝則脾臟之寒愈盛脾爲至陰喜溫而惡寒寒則腹中作痛”하고 心熱은 “若見燈愈啼者心熱也 心屬火見燈則煩熱 內生兩陽相博”하는 病機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25,27)</sup>

夜啼의 原因을 <<普濟方>><sup>28)</sup>과 <<聖濟總錄>><sup>29)</sup>에서 “夫夜啼者 有陰陽兩證 陰者臟冷也 夜則陰盛 與冷相博 冷與臟氣交擊 故作痛而啼.....陽者臟熱 夜則陽衰 與熱相博 熱與臟氣交擊 故作痛而啼”이라 하고 “有觸犯禁忌 亦令兒夜啼者”이라 하여 三種으로 分類하였고, <<中醫兒科學>><sup>31)</sup>에서는 胃寒熱重 受驚이라 하여 <<問答式 婦人小兒科學>><sup>12)</sup>의 脾寒, 心熱, 驚駭와 유사한 개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小兒醫方>><sup>5)</sup>과, <<丁茶山小兒科秘方>><sup>6)</sup>에서는 脾寒, 心熱과 더불어 欲飲乳而便啼하는 경우에 口瘡

重舌 및 耳膿등이 夜啼의 原因이 될수 있음을 말하였고, <<小兒衛生總微論方>><sup>32)</sup>에서는 夜啼의 原因을 冷, 熱, 邪崇로 分類함과 동시에 客忤, 蟲動, 重舌口瘡 등이 또한 夜啼의 原因이 될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上記한 바와 같이 三種分類에서는 夜啼의 原因으로 脾寒과 心熱이 共通的으로 나타나있으며, 口瘡重舌, 觸犯禁忌, 驚駭, 邪崇 등이 各各 夜啼를 誘發하는 原因이 될수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夜啼의 原因으로 觸犯禁忌와 “有鬼氣所持 其候睡臥不穩 或作疼痛 且鬼崇也 陰物也 入夜則旺 小兒精神怯弱 血氣嫩微 夜間被鬼所持 故令兒啼哭也”<sup>32)</sup>라 하여 邪崇를 꼽은 것은 韓醫學이 疾病의 診斷과 治療에 있어서 呪術的인 部分을 包含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斷片的인 例라 할수 있다.

夜啼를 原因에 따라 分類함에 있어서 四種으로 分類하는 경우가 있는데 “小兒夜啼有四證 一曰寒 二曰熱 三曰重舌口瘡 四曰客忤”<sup>4,8,15,34,35,36,37)</sup>라 하여 歷代의 醫家들은 이를 夜啼四證이라 불렀다.

그러나 陳復正은 <<幼幼集成>><sup>33)</sup>에서 臟寒, 心熱, 神不安, 拗哭의 四種으로 原因을 分類하였다. 臟寒과 心熱은 전술된 夜啼四證의 寒, 熱과 같은 意味로 해석할수 있으나 神不安과 拗哭은 새로운 分類로 그 意味를 살펴보면 “神不安而啼者 睡中驚悸 抱母大哭 面色紫黑 蓋神虛驚悸”라 하고 “小兒初生 性多執拗 凡有親狎之人 玩弄之物 一時不見 其心不悅而哭 爲之拗



啼”이라 하였다.<sup>33)</sup>

이는 “犯客忤夜啼 或觸生人氣忤犯而啼有曰啼驚 夜必黃昏前後尤甚”<sup>4,8,15,34,35,36,37)</sup>로 표현되는 夜啼四證의 客忤와 類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陳復正은 “凡夜啼見燈即止者 此爲點燈習慣 乃爲拗哭 實非病也 夜間切勿燃燈 任彼啼哭 二三夜自定”<sup>33)</sup>이라 하여 病的인 夜啼와 수면습관의 잘못에 의한 夜啼를 區別하여 治療與否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症狀鑑別治療>><sup>3)</sup>에서 虛寒(脾經虛寒), 心熱(心經積熱), 心血虛(心虛稟弱), 驚恐의 啼哭(受驚恐)이라 하였고, <<吳氏兒科學>><sup>38)</sup>에서는 寒, 熱, 滯, 驚의 四種으로 分類하였으며 <<兒科學講義>><sup>39)</sup>에서는 一心熱, 二脾寒, 三客忤, 四積滯, 五稟賦不足이라 하여 稟賦不足과 積滯가 夜啼의 原因에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夜啼의 原因에 따른 主要症狀과 治法을 살펴보면 脾寒에 의한 경우는 面色清白 手腹俱冷 不欲吮乳 曲腰不伸 入夜啼哭不止 舌淡苔白 指紋淡紅<sup>13,14,19,20,23,25)</sup>를 主症으로 하는데 寒盛作疼하는 경우이므로 治法은 溫中散寒하고 釣藤散<sup>8,19,20,23,30)</sup>, 理中湯<sup>14)</sup>, 益黃散加鉤膝<sup>4,8,25)</sup>, 六神散<sup>8)</sup>, 加味當歸散<sup>33)</sup>, 白殭散<sup>4)</sup> 등을 쓴다.

心熱에 의한 夜啼는 面赤脣紅 身腹俱熱 小便短赤 多淚煩躁 夜哭不止 舌質紅 苔黃 指紋深紫<sup>13,14,19,20,23,25)</sup>하며 邪熱乘心에 의한 것으로 清心瀉火해야 하므로 導赤散加減<sup>14,21,23,25,30,33)</sup>, 花火膏<sup>8)</sup>

<sup>19,20)</sup> 등을 사용한다.

<<醫學入門>><sup>22)</sup>에서는 痰熱과 虛寒에 의하여 上下伴夜啼로 나누었는데 上伴夜啼는 痰熱에 의한 것으로 “仰身有汗而啼 面赤心燥 小便赤澁 口中與腹皆熱也”라 하였고 下伴夜啼는 “曲腰而啼 面目清白 捫腹覺冷 必冒寒腹痛”을 主症으로 한다하여 心熱, 脾寒과 비슷한 症候를 나타낸다.

만약 寒熱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蟬花散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up>8,23)</sup>

張<sup>27)</sup>은 <<景岳全書>>에서는 乳食을 많이 해서 停滯하여 作痛하면 保和丸 溫胃飲加減으로 主하고 甚하면 消食丸으로 主하라고하고 大小便秘態에를 고려하여 處方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乳母의 鬱悶, 暴怒, 心肝熱博으로 因한 경우는 각각 加味歸脾湯, 加味小柴胡湯, 柴胡清肝散을 쓰도록하여 乳母의 상태가 小兒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原因이 驚駭恐懼로 因하면 편히 자지 못하고 때때로 놀라며 脣과 面色이 靑色이 되었다가 白色이 되었다가 하고 포근히 안는 것을 싫어하는 등이다. 舌과 脈에 모두 이상한 변화가 없지만 或 夜間에는 脈이 弦急하면서 數하다. 鎮驚安神하는데 鎮驚散<sup>35,37)</sup>, 朱砂安神丸加減을 사용하며 朱砂는 研細末해서 沖服한다.<sup>12)</sup>

口瘡重舌에 의한것은 欲飲乳而便啼 身額皆熱者看其口中若無瘡必喉舌腫痛 亦有耳膿作痛而啼하는데<sup>5)</sup> 照口瘡重舌類治之其啼自止하며<sup>11,30,34,37)</sup> 또는 牛黃涼膈丸 혹은 薄荷湯에 타서 혀 위에 발라준다.<sup>4)</sup> 客忤者犯客忤夜啼 或觸生

人氣忤犯而啼 有曰啼驚夜 必黃昏前後 尤甚乃客忤中惡也 하니 錢氏安神丸으로 主한다.<sup>11,34,30,37)</sup>

神不安하면 睡中驚悸 抱母大哭 面色 紫黑 蓋神虛驚悸하는데 安神丸을 사용 하고<sup>33)</sup> 만약 觸犯禁忌에 의한 경우는 마땅히 符術로 治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 9)</sup>

上述한 내용을 綜合하여 보면 小兒 夜啼의 原因은 脾寒과 心熱로 大別되 며 그외에 驚恐, 口瘡重舌, 積滯, 邪崇, 觸犯禁忌 등으로 要約이 되나, 口瘡重舌과 같은 口腔疾患과 傷乳食에 의한 積滯는 夜啼와 區別되어야 할 鑑別症候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 다.

小兒夜啼와 西醫學的 概念에서 類似한 症候로 영아기 산통과 야경증, 악몽에 의한 수면장애를 생각할 수 있 다.

영아기 산통은 자율신경계통의변조, 음식알레르기, 과식, 과도의 긴장감, 및 장내가스 등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sup>40,41)</sup> 한가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출생해서 1-2주일은 젖을 적게 먹다가 제대로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 장 속의 대변분량이 늘어 나면서 장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콜릭 이 생기는 것 같다.<sup>1)</sup>

영아기 colic은 예후가 양호한 흔한 질환으로 환아가 마치 배가 아픈 듯이 다리를 꼬부리고 계속 괴롭게 운다.<sup>1,40,</sup>

<sup>41)</sup> 이런 산통은 생후 2-6주부터 시작 해서 부모를 몹시 걱정하게 하는데 흔 히 저녁식사때부터 매일 3-4시간씩 몹 시 울며 무슨 수단을 써도 울음을 계

속하고 밤 10-11시에는 잠이 들고 만 다. 또 이 산통은 오후 2-6시 사이라 든지 다른 시간에도 생기는데 토하지 도 않고 설사도 없다. 흔히 3-6개월 사이의 어린이가 저녁때 또는 밤중에 울기 시작하면 달랠 길이 없는데 일단 그치면 또 멀쩡하다.<sup>41)</sup>

두서너달이 지나는 동안에 차차 경 해지고 3개월후에는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려 3개월산통이라고도 하지만 4-6개 월까지 계속되는 어린이도 간혹 있다. <sup>1)</sup> 대개 식욕도 좋고 외부적으로 건강 하게 보이던 영아에서 보이며 가스가 많은 점 외에는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 진찰소견은 없다.<sup>40)</sup>

이러한 영아기산통은 小兒가 낮에는 정상인데 밤이 되면 아무런 까닭없이 울거나<sup>8,9,10,11,12,13,14,15)</sup> 혹은 밤 일정한 시간에 우는 것을 말하며, 生後 6個月 以內의 嬰幼兒에게 많이 나타나는 韓 醫學의 小兒夜啼<sup>3,7,12)</sup>와 유사한 점이 많다.

患兒가 마치 배가 아픈 듯이 다리를 꼬부리고 계속 괴롭게 운다고 표현된 症狀은<sup>1,40,41)</sup> 面色清白 手腹俱冷 不欲吮乳 曲腰不伸 入夜啼哭不止<sup>19,20,13,14,23,25)</sup> 하는 脾寒에 의한 夜啼의 症狀과 거의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治法에 있어서 韓醫學에서는 여러 症狀에 따라 辨證求因하고 藥物을 利用하여 적극적인 治療를 하나, 西醫學에서는 3-6개월이 지나면 저절 로 콜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가스와 대변의 배출에 의한 복통의 감소를 기대하며, 熱이나 泄瀉가 없으면 어머니가 달래주기만 하면 된다는<sup>1)</sup> 소극적

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야경증은 小兒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대개 1-12세 사이에 일어나는데 4-6세에 다발하며 갑자기 공황상태를 보이면서 깨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잠이 든 후 30-200분 정도 경과한 후에 나타나며 1-10분정도 지속이 된다. 대개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병리가 동반되어 있는 수가 많다.<sup>10)</sup>

原因은 발달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낮에 격은 공포감과 타격, 심한 피로상태 및 수면 전에 삼환계 항울제 또는 항정신약물을 복용한 경우에 흔히 나타나며 일과성일 때가 많으며<sup>1,10,40)</sup> 호흡이 가쁘고 동공이 확산되며 땀이 많이 나고 빈맥등 자율신경계의 흥분이 있고 아동은 일어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주위에 대한 감각이 없다.<sup>10,40)</sup> 다음날 아침에 전날 밤의 야경증을 기억하지 못한다.<sup>1,40,41,42)</sup>

야경증은 남아에 더 많고 가족력이 있으며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평안하면 어린이들이 야경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다.<sup>1,43)</sup> 야경증이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만성 불안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신과적 진찰이 필요하다.<sup>40)</sup>

악몽과의 차이는 악몽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데 반하여 야경증에서는 기억상실이 있다는 점과 악몽에서는 맥박 호흡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

다.<sup>42)</sup> 영아기의 수면장애는 영아의 까다로운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고 부모의 불화나 다른 불안증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幼兒기 아동은 잠이 드는 것을 부모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로 인한 분리불안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학령기 아동에서는 도둑 잡음 천둥번개 유괴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sup>40)</sup>

악몽은 대개 불안이 원인이 되거나<sup>1,40,42)</sup> 또는 아이가 허약해졌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흔히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무서운 꿈을 꾸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생활 주변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sup>42)</sup>

악몽은 여아에 더 많고 10세 이전에 시작하는데<sup>40)</sup> 대개 악몽은 수면의 중간 또는 후반기에 나타나는데 불안의 정도가 경미하며 공황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아침에 악몽의 내용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 야경증과는 구별점이 된다.<sup>1,10)</sup> 대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를 지나면 저절로 치유된다.<sup>42)</sup>

야경증과 악몽에 의한 수면장애는 小兒夜啼의 原因中 客忤로 “觸生人氣忤犯而啼有曰啼驚”하거나<sup>1,30,34,37)</sup> 驚恐에 의하여 “小兒는 神氣가 겁이 많고 약하며 心氣는 부족하므로 낮선 사물을 보거나 낮선 소리를 듣게 되면 心神이 편하지 않고 神志가 不安하며 꿈속에서 자주 놀라며 울고 밤에도 놀라서 울며 잠을 못 잔다.”<sup>12)</sup>는 症候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나 6개월이내에

好發하는 夜啼症<sup>3,7,12)</sup>과는 발병연령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小兒夜啼症은 영아기산통과 더욱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야경증 및 악몽의 치료<sup>1)</sup>는 어린이가 자다가 울면 급히 달려가 따뜻한 품에 안아주고 조용히 위로하며 안심시켜 주며 완전히 깨우기 위해 물이나 주스를 한컵 먹여주거나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한다. 완전히 깨면 자리에 누이고 그 다음날 할 일(재미있고 반가운 계획)을 알려주고 잠이 들때까지 옆에서 지켜준다. 또한 어린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의 긴박감 불안감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 응어리를 풀어 주고, 부모와 자세히 대화를 나누어서 왜 어린이가 야경증이 생겼나 연구해야 하며 어린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씻어주고 근본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韓醫學에서는 夜啼症에 관한 많은 處方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睡眠時의 習慣을 고쳐주거나 夜啼時 小兒에게 處置할 수 있는 방법에 關해서는 많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陳復正<sup>3)</sup>은 “凡夜啼見燈即止者 此爲點燈習慣 乃爲拗哭 實非病也 夜間切勿燃燈 任彼啼哭 二三夜自定”이라 하여 病的인 夜啼와 수면습관의 잘못에 의한 夜啼를 區別하여 治療與否를 決定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어린이의 불안 갈등을 순리로 풀어주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症候에 따라 적극적으로

辨證求因하여 治療하는 노력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과 심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 IV. 結論

1. 小兒夜啼는 小兒가 낮에는 正常인 데 밤이 되면 아무런 까닭없이 울거나 或은 밤 일정한 시간에 우는 것을 말하며 生後 6個月以內의 嬰幼兒에게 많이 나타난다.
2. 小兒夜啼의 病因은 心熱과 脾寒으로 大別되며, 그 外의 病因으로 口瘡重舌 客忤 積滯, 驚恐, 邪祟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口瘡重舌과 積滯는 夜啼와 區別되는 症候로 볼 수 있다.
3. 小兒夜啼와 類似한 西醫學的 症候로 영아기산통과 야경증 및 악몽에 의한 수면장애 등이 있다.
4. 小兒夜啼는 原因에 따라 발현되는 臨床症候가 다르므로 病因에 따라 辨證施治하여야 한다.

以上에서 考察하여 본 結果 小兒夜啼는 臨床에서 常見되는 病症으로 多樣한 病因에 의하여 유발되는 疾患이다. 그러므로 病因에 따라 적절한 辨證施治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研究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의 規律과

심리적 불안정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方法의 研究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임의선 外 2人 : 임박사의 육아교실 ①, 서울, 베드로서원, 1991, 11-4, 215-8, 283-6
2. 李進容, 李在媛, 金德坤, 小兒夜啼의 原因에 따른 治療의 考察,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1989:3(1), 41-5
3. 李鳳敎 : 症狀鑑別治療, 서울, 成輔社, 1992, 691-3
4. 趙廷俊 : 及幼方, 서울, 여강출판사, 1993, 44-7
5. 崔奎憲 : 小兒醫方, 서울, 廣學書舖, 1908, 10-3
6. 丁茶山 : 丁茶山小兒科秘方, 서울, 杏林出版, 1979, 13-4
7. 江育仁 : 實用中醫兒科學, 北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152-4
8.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1992, 172-3
9. 이길환 : 알기쉬운 한방육아, 서울, 동화문화사, 1994, 116-8, 122-3
10. 醫學敎育研修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465, 831, 836-40.
11. 金수록 : 東醫小兒科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3, 91-2
12. 申天浩 : 問答式 婦人小兒科學, 서울, 成輔社, 1992, 429-30
13. 傳統醫學研究所 : 韓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94, 428, 432-3
14. 造旭 : 小兒證治, 北京, 江西科學記述出版社, 1980, 54-6
15. 江育仁 : 中醫兒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302-6

16. 金奉成, 丁奎萬, 小兒夜啼의 病因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1987:2(1), 71-4
17. 王鑾撰: 幼科類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441
18. 太宗名撰: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卷82, 2603
19. 俞景茂: 小兒藥證直訣類証釋義,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4, 201-2
20.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31-2
21. 趙旭: 兒科証治, 北京,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80, 54
22.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0, 99-101, 114-5
23. 太醫院御醫: 醫宗金鑑, 서울, 醫道韓國社, 1976, 下冊 16-7
24. 陸青節: 萬病醫藥顧問, 서울, 書苑堂, 1978, 上卷 34
25. 張璐玉; 張氏醫通, 北京, 文光圖書公私, 1976, 462
26. 金在誠: 五峰青囊訣, 大邱, 大邱韓方研究會, 1981, 259
27. 장개빈: 國譯 景岳全書, 서울, 一中社, 1992, 160-1, 164-5
28. 朱橚, 膝碩: 校正 普濟方, 서울, 醫聖堂, 1993, 118-9
29. 趙佶: 聖濟總錄, 서울, 醫聖堂, 1993, 2763, 2766, 2769
30. 沈金鰲: 幼科釋謎,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107-108
31. 時逸人: 中醫兒科學, 香港, 于碩堂書局, 24-5
32. 不著撰者: 小兒衛生總微論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422-3
33. 陳復正: 幼幼集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313-6
3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636
35. 康命吉: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75, 278-9
36. 陳言: 陳無擇三因方, 北京, 台聯國風出版社, 1978, 16-7
37. 吳得泳: 惠庵醫方, 서울, 醫藥社, 1978, 495-6
38. 吳克潛: 吳氏兒科學, 臺北, 新文豐出版公私, 中華民國66年, 151-153
39. 存仁中醫學院: 兒科學講義, 北京, 存醫中醫科學出版社, 1960, 93-5
40. 洪彰義: 小兒科學,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4, 34-5, 37-8, 632
41. 임의선 外 2人: 임박사의 육아교실 ②, 서울, 메드로서원, 1991, 47-50, 78-80
42. 韓順玉, 孫和希: 兒童養育論, 서울, 修學社, 1997, 273-5